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2017
No.72

발행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박재목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7. 12. 31

대전 여성, 남성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 빈도 높아, 10년 후 성평등 전망도 부정적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지역 성평등 정책 현안 및 수요분석 연구(책임:주혜진)'를 통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성인남녀 1,593명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직장 및 기타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적 경험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성평등 정책 사업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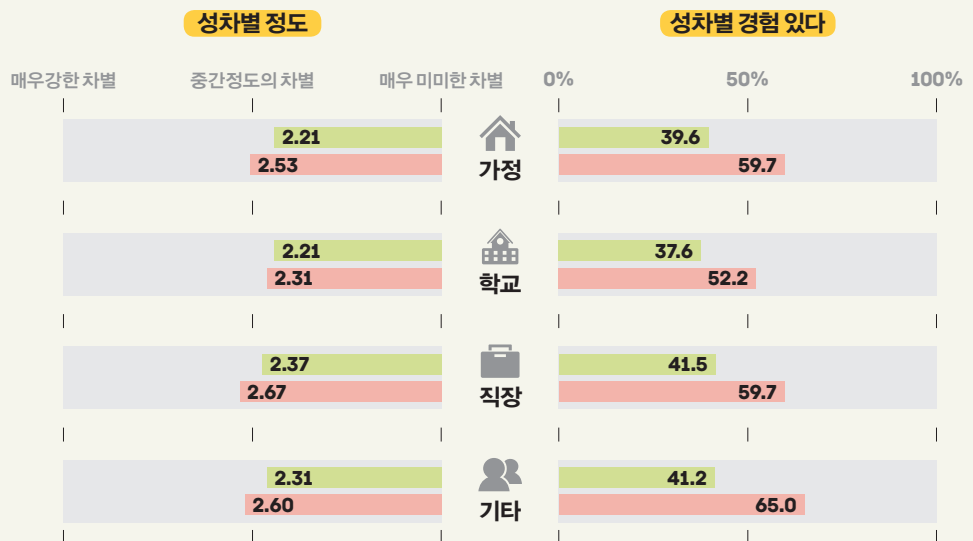
1. 사회생활 성차별 경험 여성이 남성보다 23.8%p 높아

여성은 남성보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성차별 경험 빈도도 높고, 과반수 이상 성차별 경험을 했다고 응답해 사회 전반에 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인 경험이 두드러졌다. 성차별에 대한 차별정도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녀 간 격차 또한 뚜렷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으로 남성은 ▲직장(41.5%) ▲기타(41.2%) ▲가정(39.6%) ▲학교(37.6%) 순으로 나타났고,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직장(2.37점) ▲기타(2.31점) ▲가정(2.21점), 학교(2.21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기타(65.0%) ▲가정(59.7%), 직장(59.7%) ▲학교(52.2%) 순으로 나타났고,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직장(2.67점) ▲기타(2.60점) ▲가정(2.53점) ▲학교(2.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속 남·녀의 성차별 경험과 정도

단위: 점(5점만점), % ■ 남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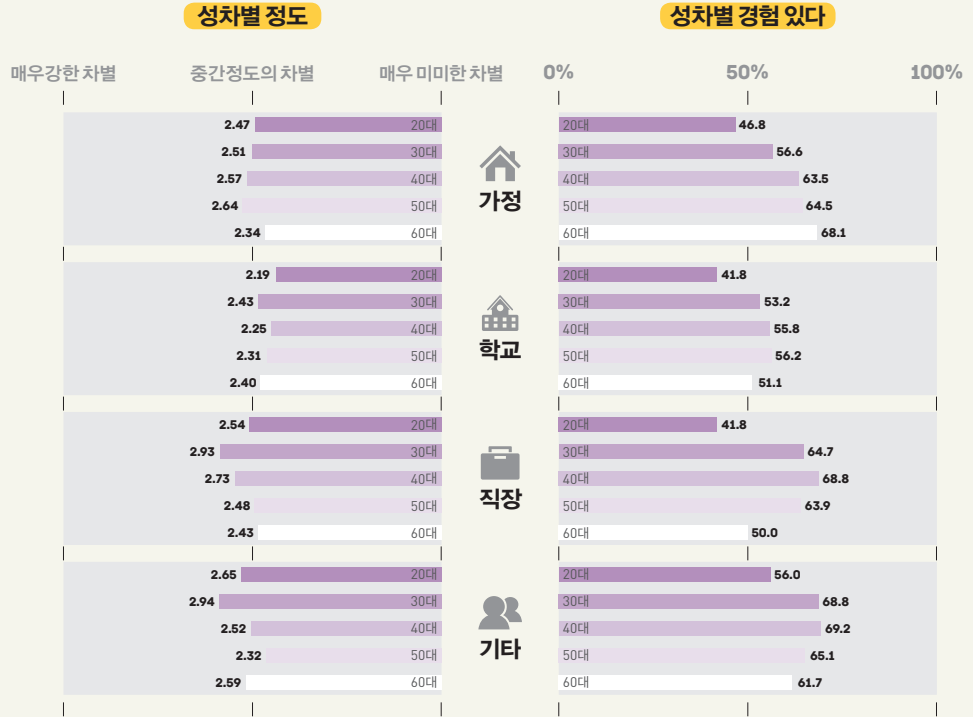


- 성차별 정도의 경우 각 항목당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 *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가사노동이나 양육 및 돌봄 노동, 그리고 가족구성원 간 재산상속 등과 관련한 성차별
- *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진로지도, 진학, 상벌 등과 관련한 성차별
- *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채용, 임금, 승진 등과 관련한 성차별
- * 기타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사회생활 속 성희롱과 성폭력을 포함하여, 외모비교, 남성 혹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나 행동 등 포괄적인 성과 관련한 고정관념, 부적절하고 부당한 대우

가정과 학교생활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차별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중장년 여성들이 성차별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반대로 직장생활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3,40대 응답자의 경험비율이 높았다. 특히 성차별 정도가 30대 2.93점으로 60대 2.43점이나 20대 2.54점 등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기타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또한 3,40대의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성차별 경험 정도도 30대(2.9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여성의 일상생활 속 성차별 경험과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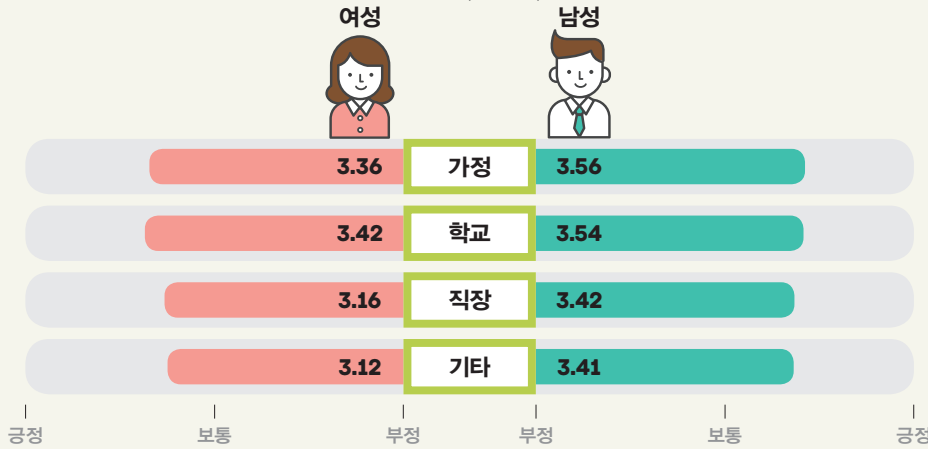
단위 : 점(5점만점), %



• 성차별 정도의 경우 각 항목당 성차별 경험 여부에 '있음'이라고 응답한 자에 한함

10년 후의 성평등 전망

단위 : 점(5점만점)



그렇다면 10년 후,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성평등하게 변할까?

10년 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평등하게 바뀔지에 대한 질문에 남성에 비해 여성은 회의적이었다. 특히 성희롱과 성폭력, 외모 비교에서 성비하 행동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생활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크게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부정적 전망을 보인 기타 사회생활 영역은 성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영역이기도 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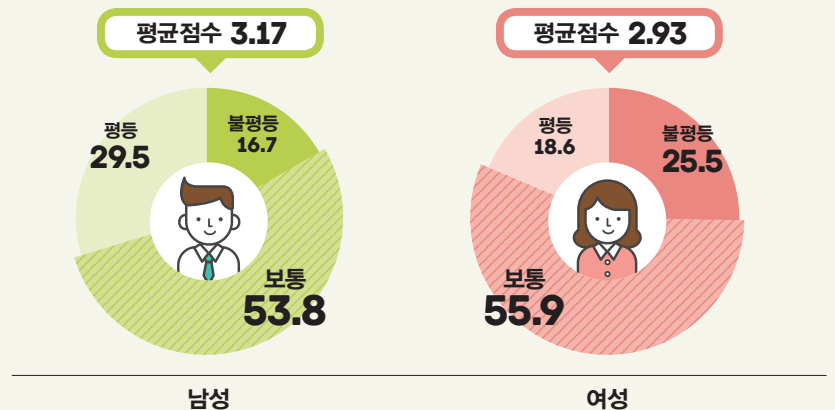
2. 남성이 여성보다 더 대전시가 성평등하다고 느껴

대전시의 성평등 현황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성평등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전반적으로 현재 대전시가 '얼마나 성평등한가'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남성은 평균 3.17점, 여성은 2.93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대전시가 성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은 25.5%가 대전이 성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은 29.4%가 대전이 성평등하다고 응답해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전시 성평등 현황에 대한 평가

단위 : %, 점(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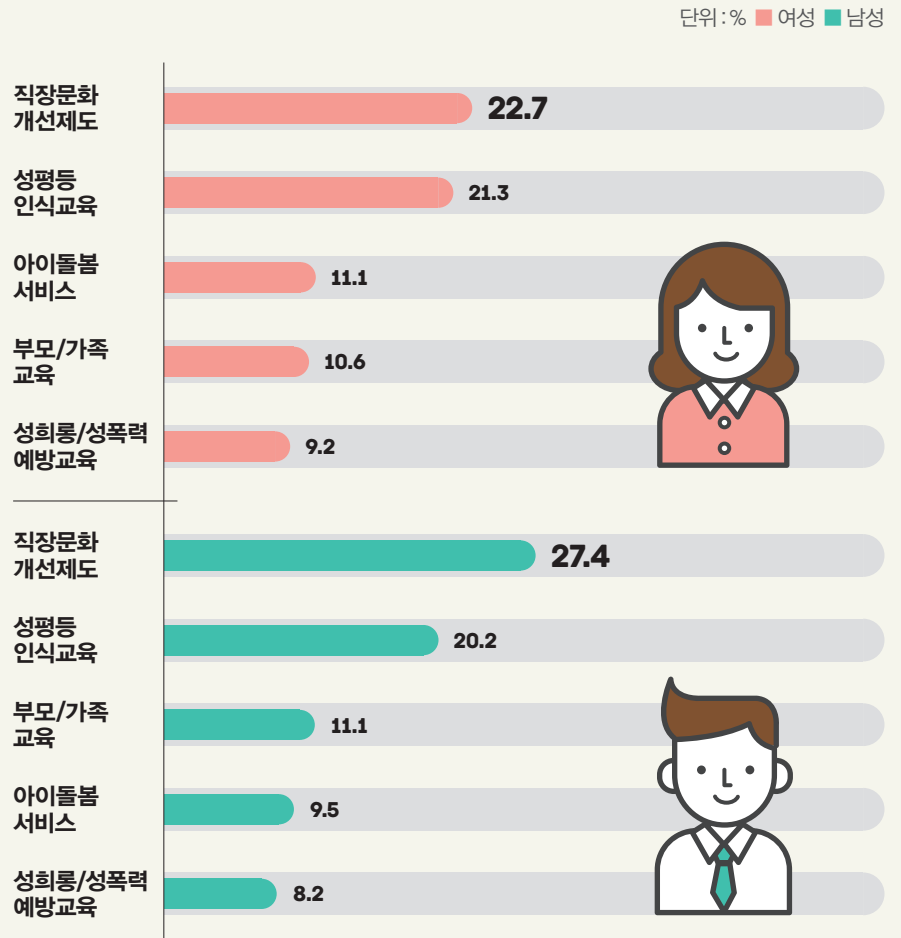


3. 남녀 모두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전시 성평등 정책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 사업 중 성평등해지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순위에 따라 고르게 한 결과, 여성 남성 모두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것(칼퇴근하는 날, 패밀리데이 등)이 효과가 좋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는 여성, 남성 모두 성평등 인식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세 번째로 부모/가족교육(아버지학교, 이혼위기가정 부모교육 등)을 효과가 좋다고 꼽았지만, 여성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일반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서비스)가 성평등 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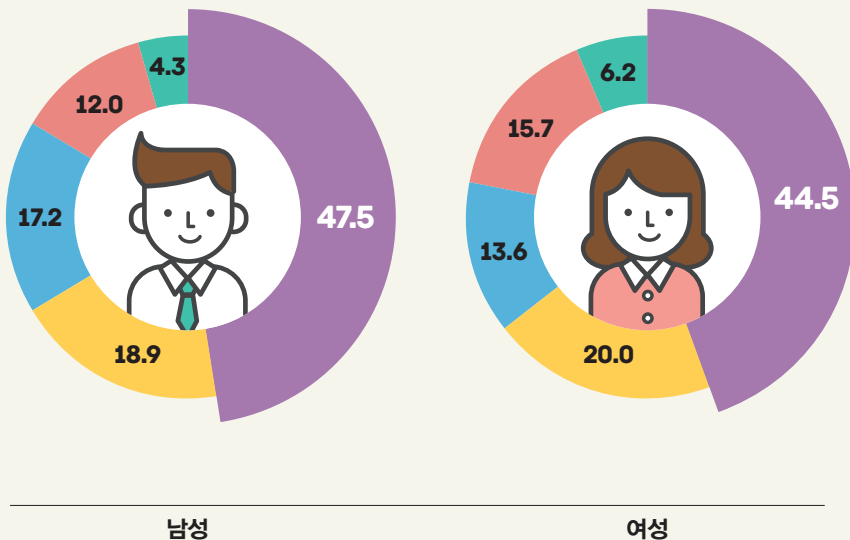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효과에 대한 남녀 생각 차이



• 총 11 문항 중 응답 1순위부터 5순위 문항까지 표시함

대전시민이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목표

■ 일과가족-생활의균형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단위: %
 ■ 아동 돌봄서비스 질적개선 ■ 여성의 대표성 향상 ■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대전 시민은 성평등한 대전을 위해 어떤 정책 목표를 원하는가

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시민에게 물은 결과, 남녀 모두 육아휴직 확대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일과 가족생활 간 균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는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선택한 목표는 남성과 여성 간 정책 목표 선정 경향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아동돌봄서비스질적개선, 여성의 대표성향상,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순인데 반해 여성은 여성의 대표성향상, 아동돌봄서비스질적개선,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순이었다.

*자료출처 주혜진(2017), 「대전지역 성평등정책 현안 및 수요 분석」, 대전세종연구원.